

KT, 김영섭 대표체제 첫 조직개편·임원인사

AI 기술조직 대폭 확장… 오승필·이현석 등 내외부 인사 탕평

‘고객·역량·실질·화합’ 제시
승진 축소… 기술혁신부문 신설
김 대표 “ICT 전문기업 도약”

KT가 30일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의 첫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이상 줄이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조직을 대폭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조직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부문을 통합한 ‘기술혁신부문’ 신설했다.

김 대표는 “ICT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고객’, ‘역량’, ‘실질’, ‘화합’이라는 네가지 핵심가치를 체질화시켜 고객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 20% 축소… 기능 중심 조직 개편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역량, 실질, 화합 등 4개 핵심 가치를 내세웠다.



광화문 KT 사옥. (원형사진) 김영섭 대표

고객이 인정하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자는 선언이다. KT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과 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논란이 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무, 윤리(감사), 경영지원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다. 또 그룹사의 경영 및

사업 리스크에 대한 관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또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부문을 해체하는 등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본사 스태프 조직인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등을 CEO 직속으로 편제하고 경영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한다.

특히 고객 지향적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상무보 이상 임원을 20% 축소한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규모를 대폭 줄였다.

◆외부 인사 영입 “사업경쟁력-경영관리 고도화”

이번 인사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도 이목을 이끈다. 업계 전문가를 영입해 사업경쟁력과 경영관리를 고도화 한다.

기술혁신부문장(CTO·최고기술책임자) 직급을 신설하고 외부 인사인 오승필 부사장을 영입했다. 오 부사장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현대카드/커머셜을 거친 IT전문가다. KT 내 IT·AI 거버넌스 체계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장에는 정우진 전무를 영입했다. 정 전무는 삼성SDS,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 등을 거친 디지털 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전문가다. KT 내 클라우드, AI, IT 분야의 기술 컨설팅 조직을 이끈다.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 및 미디어 분야 전문성을 보

유한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다. 임 부사장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KT의 경영지원 고도화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인사, 주요 보직에 보임

내부 인사도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기존 스태프 조직을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커스터머부문장에는 직무대리였던 이현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 B2C 마케팅총괄 역할을 맡는다. 엔터프라이즈부분장에는 네트워크 전문가인 대구·경북광역본부장 안창용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한다.

스태프 조직은 CSO(최고전략책임자), CFO(최고재무책임자), CHO(최고인사책임자) 중심으로 재편했다.

KT 김영섭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KT가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성화용 미래위원회 위원장(티캐스트 대표이사,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해 주원 흥국증권 대표이사, 임형준 흥국화재 대표이사, 임규준 흥국생명 대표이사,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정철현 대한화섬 대표이사, 유태호 티시스 대표이사, 손석근 흥국자산운용 대표이사, 문윤석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이사(사진 왼쪽부터)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태광그룹

태광그룹 “‘2050 넷제로’ 달성할 것”

ESG 경영 5개년 계획

친환경제품 개발, 에너지 효율화 집중

태광그룹이 ESG 경영 실천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태광그룹은 29일 ‘ESG 경영 5개년 계획 및 경영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미래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다. 그룹 차원 ESG 경영 5개년 계획안과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하며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성화용 미래위 위원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이사과 ESG 담당자 90여명이 참석했다.

태광그룹은 5개년 계획을 통해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경영 ▲이사회 중심 경영 등 3가지 핵심 전략방향을 밝혔다.

제조 부문에서는 친환경 생산설비 고도화를 통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고, 친환경제품 개발,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ESG·녹색금융 투자 및 친환경 포트폴리오 정책 확대와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그린오피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미디어·인프라 등 기타 부문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집중한다.

/김재용 기자

르노코리아-티맵, 미래 인포테인먼트 협력

차기 모델에 티맵 인포테인먼트 도입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차기 모델에 티맵 인포테인먼트를 도입한다.

르노코리아는 29일 티맵모빌리티와 미래 인포테인먼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인 MOU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로드맵을 공유하고 시장에 함께 대응키로 약속했다.

르노코리아는 우선 내년 출시를 예정한 신차 ‘오로라’에 티맵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와 서드파티 앱 및 신규 콘텐츠도 개발한다.

/김재용 기자

현대모비스, 차량용 ‘QL 디스플레이’ 개발

대화면·고화질·슬림화 특징
글로벌 신규 수주 확보 계획

현대모비스가 저렴하면서도 선명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새로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QL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QL 디스플레이는 대화면과 고화질, 슬림화를 특징으로한 제품으로, OLED 수준 품질을 내면서도 비교적 저렴해 차세대 차량용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QL 디스플레이는 색 재현율을 높이는 퀀텀닷 기술에 백라이트를 세분화해 화면 영역별로 밝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명암비를 극대화하는 로컬 디밍 기술을 융합했다. TV 시장에서는 ‘미니LED’라는 이름으로 상용화됐지만, 자동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QL 디스플레이

차용 디스플레이에서는 QL 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QL 디스플레이는 대형 곡선형 화면에 얇은 두께도 장점이다. 27인치 대화면 커브드에 14.5mm로 자동차에 더 손쉽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수 있다. 요구에 따라 두께를 10mm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QL디스플레이 신규 수주에 나선 계획이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를 직접 방문해 제품 경쟁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공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쟁력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용 기자 juk@

코닝, 반 홀 사장 임명

반 홀 수석부사장(사진)이 코닝 한국지역을 이끌게 됐다.

코닝은 한국지역 총괄사장겸 코닝정밀 소재대표이사사장에 반 홀 수석부사장을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반 홀 신임 사장은 “올해 한국 진출 50년을 기념한 코닝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벤더블 기기, 반도체, 자동차,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과 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요일 무관 9시~22시까지 접수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를 365일 관리하며 고객 만족을 더 높이기로 했다.

LG전자는 12월 11일부터 전기차 충전기 서비스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종전까지 평일 주간에만 자사 충전기 사용 중 문의와 불편 사항을 접수받았다. 앞으로는 요일과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비스를 접수하고 현장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LG전자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

자 입장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충전기뿐 아니라 LG클로이 운영 사업장이나 소비자들도 원격 서비스와 현장출동 등 상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LG전자 서흥규 EV충전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는 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와 충전경험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